

희생자단체 日政府상대 損賠訴 준비

3/3

“日帝피해 보상” 法廷투쟁 움직임

이른 9월 1일 한일합종의 시효가 끝나는 것을 계기로 재일교포 3세의 법제지우문 제가 한 일일국의 외교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두이지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현재 소송을 준비중인거나 소송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단체는 「태평양전쟁유족회」와 「사할린중포로포구조를 위한회」 「한일합종피해자협회」 등

유족회는 27일 이후 서울에서 유족회원 4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태평양전쟁피해자및유족보상추구대회」를 가진데 이어 28일 全州 29일 蔚山에서 2천여 회원을 참가자로 재판에 관한 심의회를 갖는다.

유족회는 臺灣人 희생자 및 유족들이 일본정부를 「피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패



日帝의 피해자와 희생자단체를 구성한 단체들이 모두 정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할린, 중국, 조선 태평양전쟁피해자들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있다.

이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중국 정부에 대해 8.15 광복절을 전후해 수백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정부를 보상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중국 정부에 대해 8.15 광복절을 전후해 수백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정부를 보상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日 厚生省 발표만으로도 “조선인 24萬여명 징집” “遺骸조차 안 돌려줘 제사도 못지내”

「사할린救助會」 「原爆피해자協」서도 訴訟내기로

독아

아 태평양전쟁사회의 李丙昊 회장(65)은 「한일합종의 시효가 끝나는 것을 계기로 재일교포 3세의 법제지우문 제가 한 일일국의 외교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두이지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현재 소송을 준비중인거나 소송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단체는 「태평양전쟁유족회」와 「사할린중포로포구조를 위한회」 「한일합종피해자협회」 등

유족회는 27일 이후 서울에서 유족회원 4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태평양전쟁피해자및유족보상추구대회」를 가진데 이어 28일 全州 29일 蔚山에서 2천여 회원을 참가자로 재판에 관한 심의회를 갖는다.

유족회는 臺灣人 희생자 및 유족들이 일본정부를 「피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패

이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중국 정부에 대해 8.15 광복절을 전후해 수백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정부를 보상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중국 정부에 대해 8.15 광복절을 전후해 수백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정부를 보상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